

화정 아이파크 실종자 1명 추가 발견

붕괴 건물 27층서
구조전 이상 반응 감지
전문 구조대원 추가 투입

‘광주시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관련기사 6면>

2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0분께 붕괴 건물 27층에서 내시경 카메라로 콘크리트 잔해 속을 수색하던 과정에서 혈흔, 작업복과 남성 1명을 발견했다.

구조팀은 수색을 위한 구조대원 접근 뿐 아니라 진입로 확보에도 애를 먹고 있는 상태로, “쌓여있는 콘크리트 등 적재물이 많아 장비 투입 없이는 구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매몰된 남성의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미 알려진 실종자 5명 중 한 명인지 여부도 구조 뒤에야 파악이 가능하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27~28층 내부 콘크리트 잔해물 깨기와 장애물 정리작업을 실시하다 “현장에 새끼를 투입한 경찰 인명구조견이 27층과 28층에서 이상 반응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인명구조견이 반응을 보인 27~28층 동쪽은 슬래브가 연이어 붕괴되면서 콘크리트 잔해물이 겹겹이 내려앉은 곳으로, 특히 콘크리트 덩어리가 여러층에 걸쳐 60도 기방 기울어진 상태로 남아있다.

소방청은 26일 오전 7시를 기해 탐색구조 전문 구조대원 동원령을 추가로 발령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15일째를 맞는 25일, 구조대원들이 외벽이 무너져 내린 29~30층을 수색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코로나 또 500명 돌파

전국 8571명 역대 최대
재택치료자 격리 7일로 단축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에서 하루 동안 나온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8000명대를 넘어섰다. 광주는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을 하루 앞두고 역대 최대 신규확진 기록을 또 잡아 치웠다. 전남도 연일 모든 시군에서 확진자가 쏟아지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전파력에서 기존 델타 변이를 압도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진 것이 확진자 급증 요인으로 꼽힌다.

2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광주 393명, 전남 130명 등 모두 523명이 신

규 확진됐다. 광주 일일 확진자는 이날 밤 12시까지 집계되는 야간 추가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지난 19일 359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광주·전남을 합한 수지도 역대 최다였다. 광주와 전남 일일 확진자는 지난 19일(519명) 처음으로 500명을 넘어선 뒤 22일(512명)과 24일(506명)에도 500명대였다. 광주에선 이날 동구 모 요양병원에서 44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387명으로 증가하는 등 집단 감염과 일상 감염이 쏟아졌다.

전남에선 목포 26명, 순천 24명, 무안 13명, 광양 12명, 나주 12명 등 16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목포, 무안 등 서부권과 순천, 광양 등 동부권에서 모두 확산하는 추세다. 가족이나 지인 등 접촉에 따른 감염이 속출했으며 선제 검사, 전수 검사 등에서도 확진자가 다수 확인됐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광주, 전남, 경기 평택·안성은 26일부터 방역·의료 체계가 감염 취약층에 진단과 치료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전국에서는 지난 24일 하루 동안(25일 새벽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8571명이 나왔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8000명을 넘는 것은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격리기간을 26일부터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이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전남도민 개인소득 늘었다

통계청 발표 ‘2020년 지역소득’
1인당 2010만 3000원
2017년부터 4년째 급증
전국 17개 시·도 중 10위
역외유출 2조원 감소 효과

전남도민이 언제나 쓸 수 있는 개인 소득(Gross Disposable Income of Individuals)이 지난 2017년 이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그만큼 부유해졌다는 의미다. <관련기사 5면>

전남도민들의 지갑이 든든해지고 있다. 2017년 만해도 전국 최하위였던 1인당 개인 소득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2020년 중위권에 진입한 것이다.

4년간 고용지표의 개선, 주력 산업의 선진, 공공자금 투입 규모 증가 등이 뚜렷했으며, 기본적으로 지역내 총생산과 총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그 배경이 됐다. 과거 지역 외로 유출됐던 소득 일부가 도민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것도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20년 지역소득(잠정)’에서 2020년 전남의 1인당 개인소득은 2010만3000원이었다.

전국 평균 2120만5000원에는 못 미쳤지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위에 해당된다. 대구, 전북, 충남, 제주, 충북, 경북, 경남 등을 제쳤다. 서울, 울산 등과는 여전히 격차를 보였지만, 부산, 강원, 인천은 전남의 상승세를 감안하면 추월 가능성이 있어왔다고 볼 수 있다.

2017년만해도 전남의 1인당 개인소득은 1704만3000원에 불과해 전국 17위로, 최하위였다. 서

울(2223만7000원)과는 500만원 이상 차이가 났고, 경북, 충북, 전북에도 밀렸다. 전국 평균(1920만4000원)과도 200만원 이상 격차를 보였다.

하지만 2018년부터 전남의 순위가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2018년 1820만7000원으로, 경북, 전북을 제쳐 15위로 올라섰다. 이어 2019년 1907만2000원으로 올라 충북, 전북, 제주, 경북을 누르고 13위가 됐다.

전남은 과거 1인당 개인 소득은 최저 수준인데, 1인당 지역내 총생산·총소득은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동안 높은 생산과 소득이 가계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의미다. 2017년 1인당 지역내 총생산과 1인당 지역내 총소득은 각각 4107만6000원, 3454만2000원으로 5위와 6위, 2020년에는 각각 4427만2000원, 3891만7000원으로 모두 4위로 올라섰다.

지역내 생산과 소득은 높은 반면 가계가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은 최저 수준이었다가 서서히 가계로 유입되는 자금이 증가하면서 중위권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2017년 11조원이었던 역외유출 소득이 2020년에는 9조원으로 감소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개인 소득이 높아지면 신용카드 결제액, 지방세 징수액 등 소비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는 다시 지역경제에 투입돼 경제순환 구조에 기여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액은 2017년 7조3400억원에서 2020년 8조3100억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은 2조3100억원에서 3조5600억원 등으로 각각 1조원 내외가 급증했다.

이와 함께 월평균 500만원 이상 고소득가구가 지난 2017년 7.2%에서 2020년 11.5%로 증가하고, 200만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는 52.5%에서 43.1%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호남과의 동행 위해 산업·일자리 공약 실천”

한신협, 윤석열 대선후보 인터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40여년 전 5월의 광주 시민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윤 후보는 지난 24일 서울에서 진행된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인터뷰를 통해 “광주의 아픈 역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꽃피웠다”고 밝혔다.

특히 윤 후보는 “저와 국민의힘은 호남과의 동행을 위해 독재에 대한 저항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보

듬는 것은 물론, 산업과 일자리,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며 이를 실천하겠다”면서 “호남의 미래 세대가 지역을 떠나 일자리를 찾지 않아도 되도록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을 진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더욱 많은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권통합은 정치인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자연스럽게 표로 만들어주시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바이탈뷰티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



구매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